

## 임현수 목사 北 억류, 사실로 확인

### 구명 위한 움직임 미주 교계 전역으로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의 북한 억류가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캐나다 연방 정부는 임 목사 가족에게 임 목사가 억류됐음을 확인해 통지했다. 그러나 임 목사가 북한 내 어디에서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임현수 목사

큰빛교회는 임 목사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난 주일까지 136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도 임 목사를 위해 기도 중이다.

임 목사 석방을 위한 첫 기도회가 지난 9일 큰빛교회에서 개최된 데 이어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도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11일 드렸다. 시카고에서는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를 중심으로 임 목사 석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한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다음주 내로 미주 한인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구명 운동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현수 목사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GKYM의 공동의장으로, 뉴욕과 뉴저지의 많은 교회들과도 교류해 왔다. 이에 뉴저지교협은 11일 오후 8시 임 목사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뉴저지 클리프톤에 위치한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담임 김은범 목사)에서 드렸다. 이번 중보기도회는 임 목사가 대표로 있는 선교단체 GAP(Global Assistance Partner)의 요청으로 뉴저지교협이 주관해 열게 됐다.

뉴저지교협은 “인도주의적으로 북한을 돕기 위해 북한에 갔다가 북한 정부에 의해 강제 억류된 임현수 목사의 조기 석방과 송환을 위한 기도회를 여는 일에 각 교회들이 협조해 달라”면서 “기도회와 함께 북

한이 조속히 임현수 목사를 가족과 교회에 돌려보내 달라는 한인교회의 연합된 의사를 호소문으로 만들어 북한 당국과 캐나다 정부, 유엔에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뉴저지교협은 별도로 수요일 배 일정이 있는 회원교회들은 각 교회에서 임현수 목사의 석방과 무사귀환을 위한 기도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뉴저지교협은 “어려움을 당한 임현수 목사와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밝혔다.

시카고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의 운영위원 임현석 목사는 “임현수 목사의 억류가 안타깝고, 기도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를 통해 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을 향한 기도가 한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임현수 목사도 우리를 무릅쓰고 주민들을 위해 들어가신 것이다.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무사귀환을 위한 기도를 넘어 북한 선교와 회복, 복음적 통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수 목사는 1월 30일 북한 나진에 도착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그는 지난 1월 27일 방북을 목적으로 출국해 30일 나진에 도착했고 곧 이어 31일 평양으로 들어갔지만 그 이후 연락이 끊겼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에블라 확산을 우려해 외국인을 21일간 격리 관리한다는 설도 제기되었지만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그러나 임 목사가 나진에 도착한 후,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상의할 내용이 있다며 그를 평양으로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강제 억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임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것이 공식 확인된 직후 한국교회연론회(대표회장 유만석 목사)도 ‘북한 당국은 임현수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기도일 예배에 참석한 여성들이 바하마 여성의 복장을 입고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바하마 위해 세계여성들 기도

### 남가주 세계기도일 예배에 한인 여성 140여 명 참석

전세계 기독교여성들의 바하마를 위한 기도에 남가주 한인 여성들도 함께 했다.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 열리는 세계기도일 예배에 남가주 여성들은 7일 토요일 오전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했다. 이 예배에는 약 140여 명의 한인 여성들이 참석해 바하마를 위해 기도하고 그곳 여성들을 위해 헌금했다.

올해의 주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요13:12)”로 바하마 여성들이 기도문을 작성했다. 총 20여 명의 한인 여성들이 바하마 여성들의 기도문을 낭독했고 중간에는 연합감리교회 난타팀, 드림크로마하프, LA여성선교함창단, 헤세드글로벌여성선교회 등이 특별 공연을 맡았다. 설교는 미주평안교회 임승진 담임목사가 요13-1-17을 본문으로 “예수님 같이”란 말씀을 전했다.

바하마 여성의 기도문을 모두 낭독한 후에는 바하마 교회의 부흥과 성장, 낮소 지역의 빈민들, 가정폭력 피해자들, 난민과 이주자들, 심대 미혼모들, 에이즈 환자 등 환우들을 위해 특별 중보기도를 드렸다.

또 세계기도일 예배와 전세계 교회 여성들, 교회의 부흥과 미국 및 한국의 경기 회복, 선교사들을 위해,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1887년 다윈 제임스 여사(미국장로교 국내선교부 의장)가 당시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된 세계기도일은 올해로 128주년을 맞이하며 180여 개국이 동참하고 있다. 이날은 한 나라의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전세계 여성들이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 그 나라로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경우는 1922년 만국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기도일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다. 1930년 “예수님만 바라보며”, 1963년 “이기는 힘”, 1997년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라는 주제로 기도문도 세번이나 작성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1979년부터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 전 미주 70여개 지역에서 매년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 최혁 교협회장 “한미 혈맹 더욱 든든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에 대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최혁 회장은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한미 간의 혈맹 관계가 더욱 든든히 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주요 우방국인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를 상대로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테러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명백한 테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시키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고 남을 해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다”면서 “폭력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더구나 이념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경악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한미 간의 혈맹의 관계가 더욱 든든히 서길 바란다”며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파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최상의 호스피스 전문가 팀(의사, 간호사, 보조사, 호스피스 의료원장, 영양사, 자원봉사자, 원로 성직자, 사회복지사 등)이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해 환자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사랑으로 돌봐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 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박영심 간호부장 (213) 700-6989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100% 천연성분 FDA IND임상

미국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입니다.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미국교회 침체? 급성장하는 청년들 교회에는 “그것” 이 있다

### 선교적 교회 운동을 예배에 접목한 미국교회

미국교회가 침체를 넘어 감소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추세 자체는 사실일지 몰라도 그 가운데에도 급성장하는 교회, 그것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성장하는 교회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풀러신학교 이상훈 교수는 10일 미래목회연구회와 행복한교육목회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우리 시대를 위한 창의적 목회” 포럼에서 이를 “창의적 목회와 미셔널 처치”라는 강의로 풀어냈다.

미셔널 처치 즉, 선교적 교회 운동은 이미 북미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적 훈련을 받은 선교사가 타 지역이나 타 문화권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거의 선교 개념을 뛰어넘어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운동은 특별히 다민족으로 구성된 북미 지역의 교회에 선교적 도전을 주고 있다.

이 교수는 프로그램화, 조직화 되어 버린 한국교회의 목회적 갱신은 복음과 십자가 앞에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며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다.

이 교수는 북미 지역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여러

교회의 사례를 들었다. 예를 들면, 할리우드에 있는 리얼리티LA는 30명의 성도에서 시작해 현재는 청년을 중심으로 3천명 규모로 성장했다. 이 교회를 부흥시킨 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활동은 사실 전무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배와 예수의 삶에 집중하는 선교적 도전이 있을 뿐이다.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화려한 찬양은 있지만 자신을 뽐내는 찬양 인도자나 연주자는 없으며 모든 것이 예수께 맞추어져 있던 것이다. 설교도 무려 1시간여 가까이 지속된다. 그러나 누구도 지루해 하는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또 다른 한 교회는 다운타운의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교수는 그 교회를 방문했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젊은이들이 마치 나이트클럽에 온 것 같은 옷을 입고 시끌벅적하게 떠돌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예배가 시작되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정말 예배드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런 교회들의 특징으로 자유로움을 꼽았다. 먼저 예배 형식이 자유롭다. 딱딱하게 앉아서 설교를 듣고 가기보다는 그 설교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교감하고자 한다. 이런 교감은 곧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다. 또 음악과 같은 문화를 통해 소통하면



이상훈 교수가 선교적 교회 운동을 창의적 목회와 연관지어 발제한 후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 미래목회연구회와 행복한교육목회연구소 “우리 시대를 위한 창의적 목회” 포럼

서, 신앙을 듣기보다는 체험하게 하는 데에 주력한다. 반드시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체육관, 창고, 심지어 나이트클럽까지 예배 장소로 사용한다. 감동을 주어 헌신하게 하며 예배를 통해 성도들을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 교수는 성장하는 청년 중심적 교회를 보며 이들은 어떤 목회 철학과 목회 기술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답은 오히려 간단했다. 이 교수는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어떤 목회자는 20년간 자기 가족만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늘 자기 집에는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 중독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감동을 주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고 한다. 사실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을 키우시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그는 “선교적 교회, 한국교회의 갱신은 목회자의 삶에 달려 있다. 희생하는 만



힐송LA 교회의 예배 모습. 힐송교회는 LA 다운타운 벨라스코 극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 힐송LA 웹사이트

람 교회의 문화가 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이어 행복한교육목회연구소 나삼진 박사가 “기독교 교육의 최근 동향에서 본 창의적 목회”라는 주제로 강의했고 토론과 교제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 행사를 공동주최한 미래목회연구회의 총무

전영훈 목사는 “이민교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자립교회들의 목회적 변화와 재충전을 위해 이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이 5회째 세미나로 이번에는 교단과 교파도 다양하고 목회자와 선교사 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 엠그린과 기독교일보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협력

엠그린 사(amgreensolutions.com)는 기독교일보사와 지난 3월 10일 MOU를 맺고 교회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캠페인을 시작한다.

엠그린은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주는 솔라 시스템 설치 보급 업체다.

엠그린사와 기독교일보사는 남가주 교회에 솔라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협력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당신의 고귀한 삶 아름답게 마무리를

미주 한인사회에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계몽하고 있는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교육세미나가 지난 6일 오후 2시에 위치한 커뮤니티가든 타워에서 열렸다.

한인들에게는 수정아파트로 더 잘 알려진 가든타워 측의 요청으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한인 연장자는 물론 미국인 연장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소망 소사이어티 최경철 사무총장은 응급상황에 대한 상황극을 연출하며 사전 의료지시서인 소망유언서의 중요성을 전달했고, 긴급 연락 카드를 통해 응급 상황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당하는 죽음’에서 ‘맞아하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하며 삶을 고귀하게 마무리 하라고 권면했다.

약 80여 명이 참석한 이 세미나는 특별히 한국어 세미나와 영어 세미나로 진행돼 소망 사역의 중요성을 미국인들에게도 잘 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의) 562-977-4580  
www.somangociety.org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ijk@gmail.com

###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은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수상자 및 축하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피포도에술인협회 대표 백승철 목사와 문학분야 본상 수상자 석정희 시인(앞줄 맨 오른쪽으로부터 네번째와 다섯번째)



UCS신학대학 명예총장으로 김여진 박사가 취임했다. 최아브라함 총장, 김여진 박사, 정시우 목사(맨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 제 18회 에피포도에술상 시상식 및 출판기념회

미주지역 문학 본상 석정희 시인, 신인상 박의현 시인 선정돼

에피포도에술인협회(대표 백승철 목사) 주최, 에피포도 설립 19주년 기념, 제 18회 에피포도 예술상 시상식 및 출판기념회가 지난 6일, 많은 교계 및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엘에이 한인타운 만리장성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제 16회 문학 분야 본상을 수상한 이인미 시인(전도사·문화선교원 시전 대표)의 사회로 1부는 예배, 2부는 시상식, 3부는 출판기념 및 시낭송 순으로 진행됐다.

3인(조은혜·김사라·이경애)으로 구성된 실버울동팀의 찬양활동으로 시작된 제 1부 예배는 찬양과 기도(나산진 목사·살롬교회 담임)에 이어 정인석 목사(재미고신서부노회 노회장·하늘꿈교회 담임)의 '주 하나님께 나를 (이사야50:4)'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지며 진행됐다.

정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글 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학자의 지혜가 담긴 글을 통해 지치고 힘든 이민자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격려하길 바란다."며 "그러한 아름다운 글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혼 구원에까지 이룰수 있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 2부 시상식에서는 미주지역에서 선정된 문학분야의 본상(석정희

시인·재미시인협회 부회장)과 신인상(박의현 시인), 미술분야 신인상(진재만 화가)에 대한 시상식과 배정용 시인(재미시인협회 회장)의 축사 및 장효정 시인(미주문인협회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이미 시상식을 마쳤다. 수상자로는 문학 본상에 유석암 시인, 김성희 시인, 포도제니 대상에 백영웅 사진작가가 각각 수상했다.

소프라노 여선주는 석 시인의 시 '나는 꽃'을 작곡한 이호준 작곡가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선율에 맞춰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하며 2부 행사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인도했다.

제 3부는 에피포도 수상자들의 출판을 기념하는 기념패 전달 및 백승철 목사의 감사인사와 권혁신 시인(제 16회 에피포도 수상자(추천)의 첫 시집 '내맘속 바람 꽃' 출판 기념식, 그리고 수상자의 수상소감과 대표 시낭송, 조성 목사(군타입교회 담임)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백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에피포도는 목적있는 사역의 예술이다. 즉, 예술이 사역이 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술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예술이 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피포도에술협회

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의 한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기도를 부탁했다.

또한, 에피포도에술상의 꽃은 문학분야에 대한 수상으로 이번에 본상을 수상하게 된 석 시인의 시 '점의 노래'에 대한 선정 서평도 덧붙였다. 백 목사는 그 선정 이유에 대해 "석 시인의 글을 보면 일반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을 아주 잘 접목시키는 특징이 있다. 이 시에서도 그 특징을 탁월하게 보여 주고 있다. 불안정한 한 '점'인 나와 너가 만나 완전함을 향하면서 불안정한 나를 소망있는 미완성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이는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로 결국 신을 찾게 돼 있고, 우리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절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기독교적 진리가 그대로 표현돼 있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문학분야 본상을 수상한 석정희 시인은 "수상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라는 격려의 메시지로 받아 들이겠다"며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에피포도에술상은 에피포도가 추구하는 '맑은 양심, 거짓없는 믿음의 생활화' 운동을 기초로 예술전반을 통해 복음 선교와 크리스천예술 확장을 지향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문의는 백승철 목사, 전화: 714-907-7430로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 92세 김여진 박사 UCS신학대학 명예총장으로 취임

통신성경대학은 UCS 소속으로 편입

8일 김여진 박사가 UCS신학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취임했다. 올해 92세인 김 박사는 50여년 이상 목회한 후, 2003년 성립장로교회(PCUSA)를 끝으로 은퇴했다. 그러나 80세에 다시 해외 선교사를 자청해 6년간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 LA로 돌아온 후에는 통신성경대학을 개원해 이미 수백여명의 후학들을 양성하는 열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UCS신학대학에서 열린 명예총장 취임식에는 12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 박사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까지 참석했고 김 박사의 아들 김성일 장로가 인사말씀을 전했다. 통신성경대학생들도 다

수 참석해 김 박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통신성경대학생들은 김 박사가 명예총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UCS신학대학 내의 통신학부로 편입된다.

예배에서는 정시우 목사가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인도는 최사라 목사, 축도는 UCS신학대학 최아브라함 총장이 했다.

한편, UCS신학대학은 유학생을 위해 I-20를 발급하고 있다. 졸업하면 고시를 통해 미국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

조정민 기자

### 월드미션대 기독교상담소 다양한 사역

월드미션대학교 부설 한인기독교상담소가 다양한 사역으로 한인 사회를 섬기고 있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는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얻는 지지 모임이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나성삼교회(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에서 열린다. 비용은 무료다.

또 "인간관계의 달인되기"란 그룹 상담 프로그램도 3월 24일, 31일, 4월 7일, 14일 오후 3시부터 5

시까지 월드미션대학교 501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마음과 귀를 여는 의사소통,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자기표현, 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정한 있는 대화하기 등의 강의를 마련된다.

한인기독교상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면 전화 213-738-693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인기독교상담소는 최근 LA카운티 정신건강국으로부터 10만 달러의 그랜트를 지원받아 더욱 활발히 한인 사회를 섬기고 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올림픽역) T.323.737.8888 (8월~11월) - 서부인삼부

Fullerton 지부: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아리왕마케팅) (주)아리왕마케팅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25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330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	-----------	-----------	------------

www.podental.com

**피오덴탈 Dental Plan \$10/월**

**30 DAY MONEY BACK GUARANTEE**

-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회원카드를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피오덴탈은 필요한 치료만 정직하게 제공합니다.

**전화가입** (213) 944-5067 (714) 713-1735

**온라인가입** www.podental.com

★ 코페이: \$35/visit	• Deep Cleaning: \$75/quadrant
• Exam: 무료	• 발치(Soft Tissue): \$40
• X-ray: 무료	• 발치(Partial Bony): \$65
• Scaling: 무료	• 발치(Full Bony): \$75
• 발치(Simple): 무료	• 크라운(PFM): \$300 + options
• Filling(Amalgam): \$5/surface	• 신경치료: \$150+
• Filling(Rasin Base): \$15/surface	• 틀이(Full): \$375+Lab fee

**Service Location**  
Los Angeles, Torrance, Fullerton/Anaheim/Cerritos/Norwalk, Riverside  
Irvine/Garden Grove/Santa Ana, Rowland Heights/Diamond Bar

This plan is not insurance and is not intended to replace insurance. The plan provides discounts at certain dental care providers for dental services. The plan does not make payments directly to the providers of dental services. Plan members are obligated to pay for all dental care services.  
PEOPLE ORIENTED HEALTH CARE, INC. 626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TEL. 1-800-341-0884 FAX. 714-644-8223 WWW.POHEALTHCAE.COM

· 여승훈 목사의 목상칼럼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



여승훈 목사  
복음주의 칼럼니스트

행복에 대한 목마름은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태평양을 건너 이민을 오게 된 것도 행복을 위한 것이었고, 학위 공부를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한 것이었고,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도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오늘 하루 일하는 현장에 나온 것도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본능적인 마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을 향한 이런 본능적 마음은 조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목표는 그들의 행복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자신에게 두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곧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 주의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이 하나는 주의 좌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열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고 계셨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들의 행복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나머지 열명의 제자들이 두 제자들에게 분을 내었다. 열명의 제자들이 분을 낸 것은 주의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려고 하였는데 두 제자가 먼저 탐하여 가져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당시에 제자들이 왜 그리스도를 따랐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지 못했고 자신이 행복하여지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 목표였던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살면서 눈으로 확인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본능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다. 행복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을 거부할 수는 없다. 또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의 행복한 삶이 기독교적 삶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

혼의 구원만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요. 그런데 여기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고 본질의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린도전서 10:31)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이 누리는 기본적인 삶이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 그런데 그 행복을 지나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에서 기본적으로 누리는 먹고 마시는 것의 목표가 자신의 만족과 행복에 만족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육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실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현실 속에서는 내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다. 내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은 본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길과는 반대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이런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2:20)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한 고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맨 정신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바울이 소개하는 그 믿음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믿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관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다는 말이다.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자신들의 행복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관통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목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하고, 바르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참 행복이 있는 것이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 애쓰려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길 권한다.



나성순복음교회가 지역사회 섬김의 일환으로 설립한 실버드림대학의 지난해 졸업예배 모습

## 나성순복음교회 실버드림대학 개강

### 12일 예배 및 오리엔테이션으로 새 학기 시작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실버드림대학이 봄학기 개강에 배와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3월 12일(목) 오전 9시 15분에 교회 EM에 배실에서 한다. 실버드림대학은 4년 전,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따라 노인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섬기는 대학을 목표로 설립됐다.

3년제로 운영되는 이 학교는 지난해 11월에 총 22명이 졸업했고 우수 학생 9명에게 실버드림상, 44명에게 개근상이 수여됐다. 이번 학기에는 생활영어, 스마트

폰 사용법, 뜨개질, 기도교실, 국악교실, 영화교실, 컴퓨터 초·중급반, 성경 파노라마, 고려 수지침, 건강체조, 노래교실, 유화 및 수채화, 바둑 등을 개강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 선교와 미용 선교가 매주 실시된다.

2015년 봄학기는 3월 12일(목)부터 6월 25일(목)까지 16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린다. 60세 이상으로 배움의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서미수 전도사 213-820-9796 박용숙 권사 310-404-7070

## 나성영락교회 장학생 모집... 총20만 달러

나성영락교회가 올해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나성영락교회는 1982년 크리스천 지도자를 양성하고 한인 대학생들의 학업을 돕고자 장학재단을 세웠으며 올해도 20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생 한 명 당 최소 1000달러가 지급된다.

종류는 다양하다. 나성영락교회 1대 담임인 김계용 목사 기념 장학금의 경우는 7천5백 달러씩 2명에게, 안나선교회 장학금의 경우는 4천 달러씩 2명에게 지급된다. 김 목사 기념 장학금은 나성영락교회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 교회의 세례교인이거나 신학적 노선이 비슷한 교회의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인가받은 신학교의 석사 학위 소지자나 입학예정자이면서 35세 이하여야 한다. 지난 2년간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목회한 경험도 필요하다. 안나 장학금은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신학교에 다니거나 입학하게 될 여성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신학생 장학금은 학비가 필요한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이며 일반장학금은 일반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이다. 이영순 장학금으로도 알려진 CYL장학금은 홀부모 밑에서 자라는 기독교인 대학생들을 위해서, PK 장학금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소헌교회 목회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해 개설돼 있다. 이 장학금들은 재학생과 입학 예정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들이 모든 필요 서류를 4월 17일 전까지 접수하면 영락장학재단에서 이를 검토한 후, 수혜자를 2015년 7월 페이스북에 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cholarship.youngnak.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이메일 [scholarship@youngnak.com](mailto:scholarship@youngnak.com)로 하면 된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민  
고문번호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mailto: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선교사님들께 GO!전도지를 보내세요!

28개 언어로 이미 730만부 이상 인쇄된 강력한 복음의 도구



조영장로

- ANC은누리교회 전도사역담당 12년 역임
- GO!전도집회/세미나 강사 (전국 한인교회, 멕시코교회)
- GO!전도 추천도서 출판: "나가자, 선포하자, 승리하자"
- GO!전도지 28개 언어로 730만부이상 인쇄
- GO!전도사역원 책임강사

GO!전도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미주한인교회의 전도사역에 의해 시작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미 수백만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미주한인교회 현 상황에 꼭 필요한 강력하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새로운 전도전략입니다.

GO!전도사역원, Los Angeles, CA  
[www.GoNowSave.com](http://www.GoNowSave.com)  
Tel: (661) 575-7744

## 다인종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GO!전도지



- (1) 한국어 (2) English (3) Spanish (4) 일본어 (5) 중국어 (6) Arabic (7) Burmese (8) Cambodian (9) Filipino-Tagalog (10) French (11) German (12) Haitian (13) Hindi (14) Indonesian (15) Italian (16) Javanese (17) Polish (18) Portuguese (19) Punjabi (20) Russian (21) Swahili (22) Telugu (23) Thai (24) Turkish (25) Ukrainian (26) Urdu (27) Vietnamese (28) 2개 언어 전도지(영어 & 스페니쉬) (29) 2개 언어 전도지(한국어 & 영어) (30) 3개 언어 전도지(영어, 스페니쉬 & 한국어) (31) 어린이전도지(영어 & 스페니쉬)

## 당신도 미국땅의 다인종들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세요!

이제야말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복남미 대륙의 다민족 영혼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강력한 GO!전도지를 들고 활짝 웃으며 다가가 기쁨과 담대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미주한인교회의 목사님들과 전도사역자들에게 희소식!

### 목사님들과 전도사역자들에게 FREE GIFT!

다음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GO!전도지 샘플과 GO!전도현장의 생생한 감동의 책, "나가자, 선포하자, 승리하자"를 FREE로 보내드립니다. Email: [sync@GoNowSave.com](mailto:sync@GoNowSave.com) (보내주실 내용: 목사님 이름, 교회 주소, 우송 주소, 전화번호)

### GO!전도집회/세미나를 추천합니다!

2일간의 GO!전도집회/세미나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정립/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대한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섬기는 교회의 부흥에 앞장서는 열정적인 신앙인들로 살아가도록 말씀과 복음의 현장에서 체험케 하신 수많은 놀랍고 감동적인 간증들을 통해 도전하고 훈련합니다.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성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스페셜 풀 장학금 혜택 (이중언어 사용 능통한자)**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 건강한 기쁨의 공동체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히 말씀하셨다. “그날 저녁이아말로 우리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쁨이 필요한 저녁이었지.” 그 아버지는 그들이 소유한 보석보다도 가족 구성원 자신이 더욱 소중한 보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얻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강한 쾌락주의는 레오 교수의 가정으로부터 분명히 생겼고 있었다.

세상은 즐거움과 쾌락을 좇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는 알 수 없다. 어거스틴이 육신적 즐거움을 버리고 학문을 추구하였지만, 그것도 기쁨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플라톤의 철학을 깊이 공부하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는 로마 황제 발렌시아누스

를 칭송하는 웅변원고를 적어 내려가면서, 비참함과 곤고함에 빠져들었다. 술에 대취하여 길가에서 크게 웃고 즐거워하는 거지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고 거지가 진정한 만족를 얻은 것은 아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기쁨을 누렸다고 고백한다. 그는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행복의 절정, 즐거움의 절정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스러지지 않는 즐거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 향락과 호기심과 같은 즐거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어거스틴은 주장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기쁨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누어질 때 배가(倍加)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롬 15:2)고 당부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기쁘게 하신 것을 보면, 건강한 즐거움이 결국 사랑의 공동체를 세움에서 오는 것임에 틀림없다.

### 교회와 성전의 사명



홍성준 목사  
한민음교회

교회의 성경적 유래를 보면 구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았다고 했으며(창8:20), 아브람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하였다(창12:7-8).

제단이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예배 드릴 것을 말하였다(창2장~40장).

성막이 다음에 성전이 되면서 솔로몬 임금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재료를 통하여 솔로몬 성전을 짓는다(왕상6장~7장).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마16:18).’고 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그

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고전 3:16)’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교회의 사명이 선교라면, 성전의 사명은 거룩이다(고전3:17).

예수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써 거룩한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써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깨끗함과 희생은 신앙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이 걸어 가야 할 사명이라 여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여, 타협과 상황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소서!

### 인생 파노라마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고집스러운 행동을 괴팍스러운 노인네의 생각없는 행동으로 여기지만... 아버지 덕수의 행동 속에는 파란만장한 삶의 고뇌가 고스란히 녹아내려 있었던 것이다.

주인공 덕수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숨겨진 덕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힘든 풍파를 자식이 아닌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인가라.”

어릴 적 인생의 황혼기에 훌쩍 접어든 노인들을 바라보며 ‘연약함’을 떠올렸다. 그러나 어느덧 인생의 연륜을 언급할 정도의 나이를 먹고 보니 인생 황혼녘을 통과하는 노인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그 나이에 접어들기까지 경험했을 아픔, 슬픔, 고통, 그리고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인생사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터인데.

노인들의 얼굴에 패인 깊은 주름은 인생허무의 표시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한 인간승리의 흔적을 깨닫게 된다. 삶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살아보면, 경험하면 누구나 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족의 행복, 자녀들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자신 한 몸 희생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듯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진솔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통해서 인생 파노라마를 접한다. 훌쩍 펼쳐진 인생 파노라마를 들여다 보노라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두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목적의 발견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선이 바로 그것이다. 그저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목적을 품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한 최선이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쪽 펼쳐진 인생 파노라마 속에서 인생의 의미가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은 연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어진 인생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하루 하루가 역사의 창조 작업이다.

인생의 파노라마를 접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을 다 시금 재조명해 본다. 주어진 순간의 의미도 되새겨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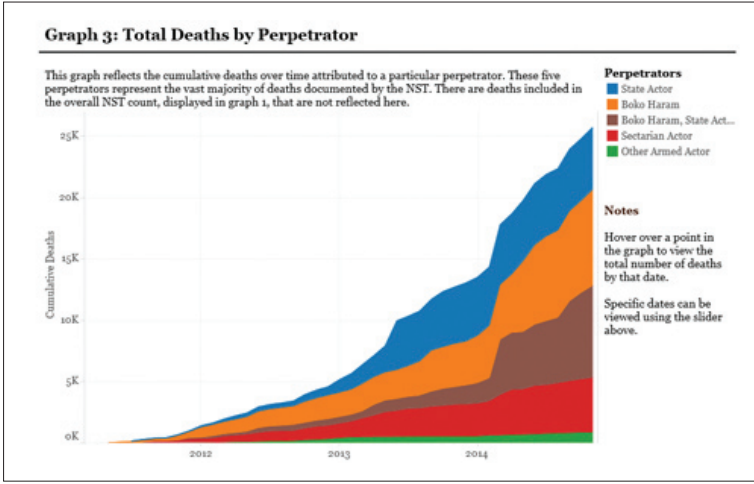
인생 말년에 이르게 된다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진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진짜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 “보코하람, IS에 충성 맹세” 인질 참수 영상도 공개

연계성 강조하고 노골적으로 선전 방식 차용



이 그래프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특정 가해자에 의해 축적된 사망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파란색은 국가단체, 노란색은 보코하람, 자주색은 보코하람과 국가단체, 빨간색은 종파주의자, 녹색은 기타 무장군을 나타낸다. ©CFR 제공

보코하람이 IS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국제테러감시단체인 시테가 7일(이하 현지시각) 전했다. 보코하람의 지도자 아부바카르 세카우는 “고난과 번영의 시기에 IS 지도자인 아부바카르 알 바그다디에 대한 충성을 선언한다”고 녹음된 성명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8분에 걸친 성명에 세카우는 등장하지 않으며, 영어·프랑스어·아랍어 자막이 게재됐다. 그는 앞서 IS의 테러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지 표했으나, 알 바그다디에 충성을 맹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해 보코하람은 보르노주 구오자 마을이 알 바그다디의 통치 아래 있는 칼리프에 포함된다고 선언했다. 최근 보코하람은 2명의 인질을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IS의 선전 방식을 노골적으로 차용해 왔다. ‘간첩 적출’(Harvest of Spies)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영상에는 보코하람 대원이 간첩 혐의를 받는 2명의 남성 뒤에 서 있는 장면과, 이들의 참수된 시체가 전시된 장면이 담겨 있다. IS에 대한 보코하람의 충성 서약에 앞서, 보르노주에서는 폭탄 테러

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보르노주 마이두구리 바가 어시장에서 몸에 폭탄을 두른 여성이 자폭했다. 1시간 뒤에는 또 다른 시장에서 자폭테러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한 차례 발생했으며, 오후 1시께 보르노 고속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도 폭탄이 터졌다. 이 3건의 폭발 사고로 인해 58명이 숨지고 13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연구분석콘소시엄의 베르안 칸 편집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참수 영상은 보코하람이 단순히 IS의 모방단체일 뿐 아니라 IS와의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임을 강조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기독교연대의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팀장인 카타자 곤드웨는 한 기독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코하람은 항상 국제적인 지하드 단체들과의 연계성을 강조해왔다. 스스로 소말리아와 이슬라미크 아그레브 알 카에다에서 훈련을 받기도 했다”면서 “세카우는 이슬람공화국인 칼리프를 주장하고 있다. 각각의 단체들은 서로의 전략을 모방하거나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해진 기자

# 샤를리 엡도 “반대 시위” 불참한 파키스탄 학교 공격당해

칼과 총으로 무장하고 학교 난입해



폭도들 때문에 부상당한 학생 ©오펜도어선교회

울고 있는 무함마드 선지자의 사진을 담은 프랑스 월간지 ‘샤를리 엡도’ 기념판이 나오자 여러 이슬람 지역에서 서양인과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적인 반발이 일어났다고 최근 폭력적인 반발이 일어났다고 최근 오펜도어선교회가 전했다. 특히 니제르에서는 7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됐고, 알제리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으며 파키스탄에서도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등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파키스탄의 경우 남부 카라치에서 거리 행진이 벌어진 후 북서부 키베르 파크툽 지역에서 샤를리 엡도 반대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 26일 반누(Bannu) 시에서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소집한 샤를리 엡도 반대 시위 행렬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 시간 펜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1,800여 명의 학생이 정상수업을 하고 있었다.

펜널학교 프레드릭 다스 교장은 15~18세의 학생들로 이뤄진 수백명의 시위자가 행렬에서 이탈하여 학교 담벼락을 타고 기어올라 정문을 강제로 열고 난입했다고 월드워치모니터(WWM)에 밝혔다. “시위자들은 문에 돌을 던졌고 14피트의 높은 담을 기어올랐다. 몇몇은 칼과 권총으로 무장했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 “어린이들은 폐사와르에 있는

육군학교 학생들인 줄 알고 겁을 먹었다. 그곳에서 132명의 학생이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페르베즈 과지 교사는 “오전 11시 쯤 쉬는 시간, 시위자들이 학교에 난입하려고 했을 때 모든 학생이 교실 밖에 있었다”며 “그들은 학생들에게 공포감을 일으켰고 창문을 부셨다. 그리고 무기를 보여주며 반기독교적인 슬로건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다스 교장은 “2층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곳에 경찰 두 명이 지부 관리부에 의해 상설 배치돼 있다”며 “시위자들이 문에 돌을 던졌을 때 경찰들에게 문을 굳건히 닫아 두라고 부탁했다. 만약 두 사람이 공중에 총을 쏘았다면 시위자들도 감히 담벼락을 넘으려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위자들이 학교를 폐쇄하려고 했다. 학교 재산을 훼손하고 창문을 부수 학생들이 우르르 도망쳤다”며 “그러다가 4명의 학생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오펜도어선교회는 “샤를리 엡도 사건 이후 서양에 대한 반감, 특히 기독교에 대한 이슬람의 반감이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또 국가가 제 기능을 하여 연약한 신앙인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 가자 지구 주민들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봉착”

현지 활동 구호단체들 국제사회 지원 절실히 요청

가자 지구 내 주민들의 삶이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현지 가톨릭 구호단체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에서 가톨릭근동구호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가자 지구 내 상황이 지난해 여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지속되던 당시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전했다. 이 협회 팔레스타인 지역 담당 디렉터인 사미 엘유세프는 “가자 지구 내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은 바로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이라는 전망조차 없다. 여기서 벗어날 출구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엘유세프는 또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감지되는 또 다른 분위기는 분노라고 전했다. 국제사회 지원을

통해서 가자 지구 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180만 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붕괴된 건물들 사이에서 살고 있으며 가자 지구 내 실업률은 70%에 육박한 상태. 엘유세프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하마스는 화해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역을 파괴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가자 지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는다. 아랍 국가들은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뉴스서비스 보도에 따르면 엘유세프는 지난 2월 가자 지구 내 붕괴 지역들을 방문해 주민들의 삶을 직접 돌아봤다.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지속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전으로 가자 지구 내

2,1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유엔인도주의사무국측은 가자 지구의 현재 상태를 “마비 상태”로 언급하며, 10만여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올해 겨울 내내 주거와 전기, 난방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로 생활해야 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30여 개 국제 구호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가자 지구 주민들을 위한 특별 구호 계획을 발표했다. 성명은 특히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은 노인, 장애인, 여성과 어린이 등이라며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가자 지구를 다시금 사람이 살아가 수 있는 곳으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곳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현정 기자

# 세력 급속 확장한 IS, 내부 분열로 몸살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알카에다에 버금가는 지하디스트 세력으로 몸집을 키운 지 1년 만에 내부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현지시각) IS에서 이탈한 대원 4명 및 IS가 장악한 지역의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IS 내부에 균열이 확산되

고 이탈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S는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직의 잔혹 행위에 반대하는 이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 처형했다. 지난달에는 시리아 라카에서 IS 조직 이탈을 시도하다 잡힌 것으로 추정되는 30~40명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강해진 기자

##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칼라 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9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9:00 PM

Tel: 213-739-1022



# KAPC 동남부노회

## 노회장에 김승기, 부노회장에 김상기 목사

### 제 69회기 정기노회 화평장로교회에서 성료



KAPC 동남부노회 제 69회 정기노회 신규임원교체식

KAPC 동남부노회 신임 노회장에 김승기 목사(맴피스제일장로교회), 부노회장에 김상기 목사(은혜반석교회), 장로 부노회장에 오석목 장로(살렘한인장로교회), 서기에 이병성 목사(햇빛장로교회)가 선출됐다.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로렌스빌 소재 화평장로교회(담임 김용환 목사)에서 개최된 KAPC 제 69회기 정기노회는 목사회원 및 사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직전 노회장 최중현 목사의 사회로 드러진 예배는 윤도기 목사가 기도하고 최중현 목사가 '더 나은 삶'(행 2:29)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최목사는 "구약에 보면 왕도 아난데 다향의 묘실에 묻히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여호와의 전에 선을 행하는 자 '여호아다'와 여호와의 전에 수종 드는 자인 그 유명한 기도의 왕 '히스기야'가 있다. 이들의 공통점이 모두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주지시킨 뒤, "주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다"라고 권면했다.

최진목 목사(갈보리장로교회)의 집례로 이어진 성찬식에서는 고근영 목사가 기도하고 최진목 목사가 "두 아들을 위한 잔치"(눅 15:3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잠시 정회를 갖고 점심 식사후 오후 1시부터 가진 회무처리에서는 회장의 개회선언 후 회원들이 새 회기 임원선거를 실시해 위 신임원 이외에도 부서기에 고근영 목사(헤브론교회), 회록서기에 이영웅 목사(사랑의 교회), 부회록서기에 김준회 목사(내쉬빌새장로교회), 회계에 고인권 장로, 부회계에 유환무 장로 등을 선출했다. 모든 새임원이 확정된 이후에는 신규임원 교체식을 가졌다.

최중현 전 노회장으로부터 성경책과 사회봉을 전해 받은 김승기 신임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카고의 중부노회를 오랫동안 섬기다가 3년여 전에 동남부노회로 이명 왔을 때에 이렇게 아름답고 화목한 노회로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 앞으로도 우리 동남부노회가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지켜가며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회장으로로서 임원들과 회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별히 이날 회무처리 중엔 새하늘교회(양진영 목사)의 김경민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열려 은혜를 더했다.

한편, 이날 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진행했으며, 12건의 헌의 문서건이 처리 됐고, 새로 가입한 노회원들과 준회원의 소개 및 인사 등이 있었다.

## 뉴욕교협, 리틀넥 새 회관 시대 본격 개막

회장 이재덕 목사, 교회 연합을 통한 전도와 협력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터



감사예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 이하 뉴욕교협)가 2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각) 리틀넥 새 회관에서 '이전 봉헌 감사예배'를 드렸다.

뉴욕교협 회장 이재덕 목사는 "1975년 6월 27일 창립총회에서 49명의 목회자가 참석해 세워진 뉴욕교협이, 새 회관으로 입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면서 "새 회관은 뉴욕 500개 한인교회를 대표해 다양한 교회연합 활동을 통한 전도와 협력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덕 목사는 "70년대와 80년대 엘머스트 회관을 거쳐 2014년 플러싱 시대를 마감하고 2015년 새해에 새 회관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40년 역사에 무수한 굴곡을 거쳐 왔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준비위원장 양승호 목사

사회, 문석호 목사 기도, 박영진 장로 성경봉독, 김남수 목사 설교, 이상호 집사 교협 연혁 소개, 이재덕 목사 인사말, 김종훈 목사 헌금기도, 감사패·위촉패 증정, 김희복 목사 광고, 방지각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 만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피터 구 의원과 그레이스 맹의원 등도 참석했으며, 론 김 뉴욕주 하원 등은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남수 목사는 '세워지는 기둥'(왕상 7:21-2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새 회관이 뉴욕 500개 교회에 성전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영적 중심이 될 것을 주문했다. 축사와 격려사를 맡았던 교계 인사들은 뉴욕교협이 지난 40여년간 겪었던 역경을 설명하고, 교회들을 품는 보급자리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가면서 주변 이웃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것을 요청했다.

## 건강한 자연 먹거리로 선교, 자연농 세미나

유기농업을 통해 먹거리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미주 자연농성교회가 오는 20일-21일까지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자연농업 기본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연농 세미나는 자연농업의 원리 및 방법, 자연농업 자재 만들기 및 사용법, 선교지 적용 방법과 실베 선교, 도시 텃

밭 가꾸기와 태초 먹거리 학교 등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자연 농업의 원리와 방법과 더불어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강의한다. 자연농업은 선교지에서도 아주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다. 문의는 전화 425-297-3285



##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친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에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10:30 (수)

금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8:30 (월-금)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공부 오후 10:45

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45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천양예배 오후 1:45

EM 예배 주일 오전 11:00  
심양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승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연발, 이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장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항 (정부 배너 및 전판)  
음식 보조 프로그램 (Food Stamp), 메디칼, 입산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구역모임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성**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 전도하는/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 (323) 428-7878 / F. (323) 932-0788 / kuhnoh@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8:00  
EM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서건우**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lakwpc.org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현호** 담임목사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초 정신은 흐름, 비전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6:30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지고(Hear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박부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박성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LA 선교교회**  
내 직업을 넘어,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며, 소망중에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정월이 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주일-비질중학교 / 토요새벽-17와버몬트 코너-100 New Hampshire  
주중새벽-LASF대안학교(6과)와 라파드트 코너-620 S. La Fayette Park

**김기섭** 담임목사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을 축복하며, 이민(3세대)을 세워주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6-2233 / www.LASara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령침례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백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모임(토) 오전 06:00  
문회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9시 (가정성)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75580 E Ramon Rrd, Thousand Palms, CA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바치는 교회(마: 45: 1)  
인종을 넘어 2. 신앙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성경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철**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성경공부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전 7:30분 영아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예배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ganachurch.hompa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11시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성경부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교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성경부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진**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성령침례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어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장년) 수요일예배 월-토 오전 5:30am  
H.M.예배 오후 3:00(장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령침례 오후 7:0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성령침례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토 요일 6:00  
2부예배 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30(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링우림) 금요일성령침례 오후 8:00  
오후 12:00 (본당)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망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비전채플 Visi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금요일성령침례 - 저녁 7:45 목요일성령침례 - 저녁 7:45 목요일성령침례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교사(재배)주일 오전 9:45 수요일(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성령침례 - 저녁 7:45 목요일성령침례 - 저녁 7:45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구약모임 매월 1회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도회) 오전 10:30

**조 인** 담임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한인 선교 지도자들

“선교 30년 역사, 전환점 맞아 결의”

KWMF 제7차 지도력 개발회의 및 중앙총회



한인세계선교사회 제7차 지도력 개발회의 및 중앙총회 선교대회에 참석한 세계 각 지역 선교 대표자들이 ©KWMF

세계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 선교 지도자 250여 명이 선교 위기의 시대를 맞아 과거 한국교회의 성과주의 선교를 반성하고, 성경에 근거한 복음적 선교 정신을 따라 연합과 일치치를 이루는 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또 급변하는 세계와 세대의 선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차세대와 MK 선교자원을 동력화하며, 선교 본질 회복, 연구 개발과 연장 교육, 현지 교회 및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지도력 이양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세계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 선교 지도자 250여 명이 선교 위기의 시대를 맞아 과거 한국교회의 성과주의 선교를 반성하고, 성경에 근거한 복음적 선교 정신을 따라 연합과 일치치를 이루는 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또 급변하는 세계와 세대의 선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차세대와 MK 선교자원을 동력화하며, 선교 본질 회복, 연구 개발과 연장 교육, 현지 교회 및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지도력 이양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15년 차 이상 한인 선교사들이 참여한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제7차 지도력 개발회의 및 중앙총회 선교대회가 지난달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섬 이나 그랜드 발리 비치 호텔(Inna Grand Bali Beach Hotel)에서 은혜 가운데 마쳤다.

한편, 대회 주 강사로는 김중국, 임종표, 박기호, 이재환, 한정국, 고석희, 김연수, 정민용 선교사, 정현기 세계로병원 원장, 분과별 소그룹 발제는 각 전문 분야별 발제자 38명이 맡았다. 아침예배는 유정길, 정민용, 송충석 선교사, 저녁 영성집회에는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한기홍 목사(미주교회협의회 회장, 은혜한인교회),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폐회예배는 박은조 목사(한국오염선교회 이사장, 은혜샘물교회)가 각각 섬겼다. 대회에서는 앞으로의 KWMF 로드맵과 실행에 옮길 대회선언문도 발표됐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2015년 제7차 KWMF 지도력개발회의 선언문

한국선교는 그동안 성장과 발전을 해왔으나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선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에 34개국에서 온 252명의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모였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에 34개국에서 온 252명의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모였다.

‘한국교회의 반성과 혁신’을 주제로, ‘한국선교의 미래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 대회장이자 KWMF 대표회장인 김중국 인도네시아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처음부터 함께하신 모임이었다”며 “그동안 한국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말씀 앞에서 회개했으며, 한인세계선교사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등 지도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주님이 원하시는 한국교회의 미래선교 방향을 함께 찾고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2일 소감을 밝혔다.

김 선교사는 또 “1월 말 참가자 확정 이후 2월부터 사무총장 안성원 선교사와 각 지역 대표 등 모든 임원이 금식기도를 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임이 되도록 부르짖으며 준비해 왔다”며 “그 덕분인지 이 자리에서 모든 참석자가 주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했고, 변화되어야 할 주제는 ‘나 자신’임을 깨달아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한층 더 발전된 한국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때 한국선교의 내일은 소망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참석자들도 이번 대회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한국선교의 급성장과 함께 계속 지적되어 온 한국선교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한국선교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다루는 동시에 한국선교의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분과별 소그룹 발제에서는 선임 선교사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아침, 저녁으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 눈물로 회개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선교의 원리와 선교사 정체성을 성경에 근거하여 복음적 선교 정신을 새롭게 인식한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한국 선교가 한국 사회와 교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성장주의, 성과주의, 가시적 선교를 해 왔음을 반성하고 분열과 불일치를 회개하며 연합과 일치를 위한 헌신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건강한 선교가 나 자신의 변혁으로부터 시작됨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와 세대의 선교 환경을 직시하여 선교자원(차세대, MK 등)을 동력화 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선교사들의 선교 본질 회복과 선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과 연장 교육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지상과업 완수를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며, 현지 교회와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하며 지도력을 이양해 간다.

이번 대회에는 현장 선교사들뿐 아니라 한국에서 KWMA 정책위원들과 각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 실무대표, 미국에서 KWMC 고석희 사무총장 등이 참

다른 참석자들도 이번 대회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한국선교의 급성장과 함께 계속 지적되어 온 한국선교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한국선교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다루는 동시에 한국선교의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분과별 소그룹 발제에서는 선임 선교사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아침, 저녁으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 눈물로 회개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는 현장 선교사들뿐 아니라 한국에서 KWMA 정책위원들과 각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 실무대표, 미국에서 KWMC 고석희 사무총장 등이 참

다른 참석자들도 이번 대회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한국선교의 급성장과 함께 계속 지적되어 온 한국선교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한국선교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다루는 동시에 한국선교의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분과별 소그룹 발제에서는 선임 선교사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아침, 저녁으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 눈물로 회개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는 현장 선교사들뿐 아니라 한국에서 KWMA 정책위원들과 각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 실무대표, 미국에서 KWMC 고석희 사무총장 등이 참

다른 참석자들도 이번 대회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한국선교의 급성장과 함께 계속 지적되어 온 한국선교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한국선교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다루는 동시에 한국선교의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분과별 소그룹 발제에서는 선임 선교사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아침, 저녁으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 눈물로 회개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는 현장 선교사들뿐 아니라 한국에서 KWMA 정책위원들과 각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 실무대표, 미국에서 KWMC 고석희 사무총장 등이 참

다른 참석자들도 이번 대회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한국선교의 급성장과 함께 계속 지적되어 온 한국선교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한국선교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다루는 동시에 한국선교의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분과별 소그룹 발제에서는 선임 선교사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아침, 저녁으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 눈물로 회개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는 현장 선교사들뿐 아니라 한국에서 KWMA 정책위원들과 각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 실무대표, 미국에서 KWMC 고석희 사무총장 등이 참

다른 참석자들도 이번 대회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한국선교의 급성장과 함께 계속 지적되어 온 한국선교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한국선교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다루는 동시에 한국선교의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분과별 소그룹 발제에서는 선임 선교사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아침, 저녁으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 눈물로 회개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는 현장 선교사들뿐 아니라 한국에서 KWMA 정책위원들과 각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 실무대표, 미국에서 KWMC 고석희 사무총장 등이 참

다른 참석자들도 이번 대회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한국선교의 급성장과 함께 계속 지적되어 온 한국선교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한국선교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다루는 동시에 한국선교의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분과별 소그룹 발제에서는 선임 선교사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아침, 저녁으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 눈물로 회개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는 현장 선교사들뿐 아니라 한국에서 KWMA 정책위원들과 각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 실무대표, 미국에서 KWMC 고석희 사무총장 등이 참

다른 참석자들도 이번 대회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한국선교의 급성장과 함께 계속 지적되어 온 한국선교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한국선교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다루는 동시에 한국선교의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분과별 소그룹 발제에서는 선임 선교사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아침, 저녁으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 눈물로 회개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는 현장 선교사들뿐 아니라 한국에서 KWMA 정책위원들과 각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 실무대표, 미국에서 KWMC 고석희 사무총장 등이 참

다른 참석자들도 이번 대회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한국선교의 급성장과 함께 계속 지적되어 온 한국선교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한국선교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다루는 동시에 한국선교의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분과별 소그룹 발제에서는 선임 선교사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아침, 저녁으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 눈물로 회개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회 주 강사로는 김중국, 임종표, 박기호, 이재환, 한정국, 고석희, 김연수, 정민용 선교사, 정현기 세계로병원 원장, 분과별 소그룹 발제는 각 전문 분야별 발제자 38명이 맡았다. 아침예배는 유정길, 정민용, 송충석 선교사, 저녁 영성집회에는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한기홍 목사(미주교회협의회 회장, 은혜한인교회),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폐회예배는 박은조 목사(한국오염선교회 이사장, 은혜샘물교회)가 각각 섬겼다. 대회에서는 앞으로의 KWMF 로드맵과 실행에 옮길 대회선언문도 발표됐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한국선교는 그동안 성장과 발전을 해왔으나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선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에 34개국에서 온 252명의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모였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에 34개국에서 온 252명의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모였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에 34개국에서 온 252명의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모였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에 34개국에서 온 252명의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모였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에 34개국에서 온 252명의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모였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에 34개국에서 온 252명의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모였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에 34개국에서 온 252명의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모였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에 34개국에서 온 252명의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모였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에 34개국에서 온 252명의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모였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에 34개국에서 온 252명의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모였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에 34개국에서 온 252명의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모였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에 34개국에서 온 252명의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모였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에 34개국에서 온 252명의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모였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프랭클린 그레함

“미국서도 곧 기독교 박해받을 것”

기독교인들에게 적극적 정치 참여 역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미국 내 종교의 자유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 교계를 대표하는 인사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기독교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일인 지난 8일(현지시각) 폭스뉴스의 '폭스앤프렌즈퀘스트(Fox and Friends Weekend)'에 출연한 그레함 목사는 “곧 미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법안들이 통과된 것을 알고 있다. 이슬람 신앙을 대변하는 이들이 많은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적 기독교 지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로 잘 알려진 그가, 미국 기독교인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월 오라클다주(州)에서 열린 '전도 컨퍼런스(Evangelism Conference)'에서 “누가 기독교인들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하는가? 동성애자들과 레즈비언들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모든 반신론자들은 정계에 있다. 그들은 그곳

에 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가? 누가 우리는 말할 수 없다고 했나? 누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난 여러분에게 유일한 길이자 희망은 공화당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민주당이나 어떤 당도 아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 조상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날 방송에서도 그레함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 확산을 강조했다.

진행자인 터커 칼슨(Tucker Carlson)이 “미국이 잘못된 점을 고치고 방향을 수정하도록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모든 이들이 기도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계에는 문제가 많고, 우리는 점점 더 탐욕스럽고 격렬해져서 상대방과 싸운다. 우리는 민주당 기독교인들과 공화당 기독교인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다시금 워싱턴으로 모시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 피습사건 강력 규탄

뉴욕교협 이재덕 목사, 반인륜적 행위 절대 용납 안돼



뉴욕교협 회장 이재덕 목사는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가 한국시각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반미 성향의 인사로부터 피습을 당한 것과 관련해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이재덕 회장은 “어떤 이유도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재덕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범행 동기의 배경이 연례적인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에 대한 반대에 기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전쟁을 반대한다면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 되는 목을 찌르려는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은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덕 회장은 범행을 벌인 김기종 씨(55)가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 대표로 북한을 8번 왕래하고,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황선 의원과도 공동 행사를 진행한 경력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민족이 비핵화 평화를 지향하도록 유도해야 생명에 위협을 주는 폭력적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보수적인 정서가 강한 뉴욕 한인교회들은 이번 리퍼트 주한미대사의 피습 소식과 관련, 동맹국에서 미국의 대사가 고한 습격으로 큰 부상을 입는데 대한 안타까움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과격 반미주의에 대한 분노를 함께 표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 한인들도 리퍼트 대사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임소정), 버지니아한인회(회장 김태원),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회장 서재홍), 민주평등위성단체협의회(회장 황원근), 워싱턴재향군인회(회장 이병희), 6.25참전유공자회(회장 이경주), 워싱턴통합노인연합회(회장 우태창) 등 7개 단체가 3월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테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한국에서 발생한 김기종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 및 폭력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김기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 어떠한 유사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예방 시스템 확립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며 “이 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한미 두 나라의 관계가 견고함을 확신하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합심하여 동포사회 안보교육에도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친한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조속한 패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충격이 컸을 그와 그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국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O.C. / 엘바인 지역

<p><b>오병의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8:00</p> <p><b>건강한 교회</b>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p>	<p><b>김영달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어평생강좌: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p> <p><b>감사한인교회</b>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동부 오전 11:00</p> <p>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p> <p><b>민경엽 담임목사</b></p> <p><b>나침반 교회</b>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amp;Pu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ELMC) 주일 오후 12:30 수요기도회 주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p> <p><b>박일룡 담임목사</b></p> <p><b>로렘장로교회</b>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HTHEM.COM</p>
<p>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절은이예배)</p> <p>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p> <p><b>고현중 담임목사</b></p> <p><b>디사이플교회</b>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p>	<p>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p> <p>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회 저녁 8:00 분당 금요일 저녁 8:00 분당</p> <p><b>허귀암 담임목사</b></p> <p><b>놀익연합감리교회</b>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s8291@gmail.com</p>
<p>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p> <p>금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b>이서 담임목사</b></p> <p><b>미주비전교회</b>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714)821-9900,9901 / visioncc.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b>김한요 담임목사</b></p> <p><b>베델한인교회</b>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 854-4010 / F.(949) 854-4018</p>
<p>주일예배 오후 12:30 교류부예배 오후 12:30</p> <p><b>김용철 담임목사</b>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p> <p><b>엘바인중앙교회</b>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714)309-7551 Pastorykim@yahoo.com</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p> <p>수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 오전 6:00</p> <p><b>신원규 담임목사</b></p> <p><b>삼성장로교회</b>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562) 690-9800 / F.(562) 690-8044 www.socialsamsungchurch.org</p>
<p>주일예배(KM) 주일 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류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p> <p>금요일예배 7:3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p> <p><b>안창훈 담임목사</b></p> <p><b>늘푸른선교회</b>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p>	<p>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전 12:45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p> <p><b>김민재 담임목사</b></p> <p><b>예친교회</b>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p>
<p>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p> <p>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 9:15 고등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점심부 오후 2:00</p> <p><b>권혁민 담임목사</b></p> <p><b>엘바인은누리교회</b>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p> <p>금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p> <p><b>홍성준 담임목사</b></p> <p><b>엘바인 한민음교회</b>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949)769-9628</p>
<p>주일 삼십이 예배: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p> <p>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p> <p><b>임경남 담임목사</b></p> <p><b>토기장이교회</b>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p>	<p>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7:20 PM(성경 66관학평생성경부)</p> <p>새벽예배: 5:30 AM(화-금) 6:30 AM(토)</p> <p><b>이승필 담임목사</b></p> <p><b>새로운 교회</b> 이해를 받지 않고 마음을 새겨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신성(성) 교인으로서 온전(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2)</p>
<p>주일 인터넷 생방송등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p> <p>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p> <p><b>우대권 담임목사</b></p> <p><b>영광빛복음교회</b>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9: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p> <p>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초등부예배 오전 11:30 한어초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p> <p><b>엄영민 담임목사</b></p> <p><b>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b> 영광한 교회 성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714) 446-6200 / F.(714) 446-6207</p>
<p>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p> <p>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사와일 세미나: 매일 깃배주 (토) 오전 10:00</p> <p><b>최국현 담임목사</b></p> <p><b>은혜와진리교회</b> 부설: 이사로일 אלי아 선교회-성지순례, 침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일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남성수 담임목사</b></p> <p><b>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b>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ister, CA92683 T.(714) 893-1652 / kccoc.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주혁로 담임목사</b></p> <p><b>주님의 빛 교회</b>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714)252-9191 / www.lordlight.org</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p> <p>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b>주혁로 담임목사</b></p> <p><b>주님의 빛 교회</b>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p>
<p>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복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영 목사 사무간사 홍지훈 전도사</p> <p><b>성경적목회연합회</b>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최고등부 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p> <p><b>앤드류 김 담임목사</b></p> <p><b>UBM교회</b>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p>
<p>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p> <p><b>김철민 장로</b></p> <p><b>CMF선교회</b>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p> <p>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일예배 오후 08:00</p> <p><b>한기홍 담임목사</b></p>
<p>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복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영 목사 사무간사 홍지훈 전도사</p> <p><b>성경적목회연합회</b>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p> <p>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일예배 오후 08:00</p> <p><b>앤드류 김 담임목사</b></p> <p><b>UBM교회</b>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p>
<p>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복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영 목사 사무간사 홍지훈 전도사</p> <p><b>성경적목회연합회</b>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p> <p>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일예배 오후 08:00</p> <p><b>한기홍 담임목사</b></p>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인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프로모션 A</p>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b>\$440 \$100</b> No Tax</p>	<p>프로모션 B</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b>\$460 \$100</b> No Tax</p>	<p>프로모션 C</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b>\$440 \$100</b> No Tax</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율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어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아.
- ★비염,코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져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장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면 눈이 점점 맑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상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꼴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가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의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 호스피스 케어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 사랑과 섬김이 미션으로 이어지는 호스피스 케어

일반인들에게는 호스피스(hospice)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암환자 등 삶의 절박한 환경에 처한 난치병 환자나 그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현재진행형의 매우 익숙한 단어로 다가갈 것이다.

호스피스(hospice)는 원래 중세 유럽에서 여행 순례자에게 숙박을 제공했던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런 여행자가 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대로 그 곳에서 치료 및 간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수용시설 전반을 호스피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서는 말기 암환자 등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의료시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게 됐다. 이는 연명을 위한 단순한 차원의 수용시설이 아니라 인생의 말기를 맞은 자에게 육체적 고통의 경감과 정신적 평안함 속의 임종을 맞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국의 성(聖) 크리스토퍼 호스피스가 그 효시이다.

현대적 의미의 호스피스는 시슬리 손더스(Cicely Saunders)라는 영국 간호사에 의해 태동됐다. 그녀는 폴란드 피난민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의 보살핌을 받은 말기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걱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증상에서 현재지 완화되는 것을 보고 이 의료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손더스는 병보다 환자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했고, ‘총체적 고

통’(total pain)이란 개념을 소개했다. 총체적 고통이란 신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1967년에 손더스는 성 크리스토퍼라는 호스피스를 열었다. 미국에서는 예일 간호학교의 학장인 플로렌스 월드(Florence Wald)에 의해 1971년에 호스피스협회가 세워졌다. 1969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의 베스트셀러인 ‘On Death and Dying’은 의료인이 어떻게 말기 환자의 고통에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호스피스 사업의 목적과 역할을 미션으로 이어가는 중심에 H&A·시에라 호스피스가 있어 우리 한인 지역사회를 돕고 있다. H&A는 지난 2007년에 시미밸리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그리고 현재 엘에이, 벨리, 오렌지카운티 지역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호스피스 환자들을 보살피며 그 신뢰도와 명성을 인정받아 가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 환자가 이미 서비스를 받아본 환자 지인들의 소개로 연결되고 있음이 그 신뢰도와 명성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환자들이 많이 있는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코로나까지 환자들의 요청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지난 2003년에는 엘에이 한인타운 중심인 윌셔가에 시에라 호스피스케어 사무실을 개소하고 더욱 더 신속하고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르렀다.

호스피스케어 서비스를 받는 비용은 메디케어나 메디칼 및 개인건

강보험 등으로 혜택을 받게 되면 개인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환자의 사회보장(소셜세탁), 간병인 서비스, 어덜트 데이케어 등의 서비스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 양 호스피스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박영심 간호부장에 의하면 본인은 물론, 모든 스태프들이 하루 24시간 환자들을 위해 대기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모두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환자가 있는 양로병원이나 양로호텔, 또는 거주지로 달려가서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H&A와 시에라 호스피스케어 스태프들은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훈련된 전문가 의사,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가정간호 보조사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주 7일 24시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지도자들의 영적 서비스 제공도 강점 중의 하나이다. 또한 모든 스태프 이중언어에 능통한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인환자들이 전혀 언어적인 불편함 없이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기도 하다. 서비스도 한인커뮤니티 섬김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환자도 한인환자에 집중돼 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간호 서비스, 가정간호보조, 영적상담, 의료 사회복지 상담, 영양 상담, 물리치료(필요시 제공), 언어치료(필요시 제공),



SIERRA HOSPIECEARE 소속 전문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섬기고 있다.

통증조절과 증상관리, 호스피스 진단으로 처방되는 모든 약 제공, 의료용품, 가정용 의료기기(병원 침대, 산소 등), 양로병원 입원 간호, 임종의 순간까지 지속적인 관리, 임종을 맞은 후 관리, 훈련된 자원봉사자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회나 단체 등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훈련을 원할 때는 직접 찾아가 세미나를 열어주고 자원봉사자 자격을 획득할 수도 있게 해준다.

박 간호부장은 호스피스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은 반드시 이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를 권했다. 왜냐하면 환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응급사후시 발생할 여러 번거로운 일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욱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 만큼 받을 혜택이 많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주위를 돌아보자.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더 이상 생소하

지 않게 여겨질 것이다. 우리 주위에 완치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얼마나 많은가. 환자 자신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자. 그래서 환자 자신은 남은 여생을 인간으로서의 질 높은 삶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도록 도와주고, 가족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고도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 문의 및 연락처  
SIERRA HOSPIECEARE, INC.  
(3660 Wilshire Blvd., #225 LA, CA90010) /전화: 213-380-1100  
H&A HOSPICE, INC(4511 Alamo St., Simi Valley, CA93063) /전화: 805-583-3565  
☎ 한국어 상담: 213-700-6989  
이영인 기자

### 행복칼럼

## 간통과 성경-마5:28



이선이 목사  
솔람미상담소  
연구원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가 사라지면 불륜이 조장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들은 “사회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이제 더 이상 국민의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간통에 대한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241조(간통)에 따르면 ①배우

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29조(배우자의 고소)에 따르면,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할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실제 법에 의한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간통죄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시된다.

간통에 대한 법 규정은 위와 같은데, 성경은 간통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라고 인간의 간통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시나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십계명 중 제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출 20:14)이다. 즉 간음은 하나님의 계율을 어긴 것이다. 기독교적 결혼이란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헌신할 것을 거룩하게 서약하는 것이다.

세속적 세계관은 성적 욕구를 부추겨서 결혼의 경계선이 없이 탐닉하게 만든다. 또한 성을 종종 물리적 행동으로 축소시키며, 간혹 보살핌의 관계 속에서 본다.

또한, 성에 대해 개인적인 희열과 욕구 충족에 강조점을 둔다. 그러면서 성은 단순히 즐기는 것이라 생

각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한 성에 대한 관점은, 성관계는 오직 결혼 속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성을 영적인 면은 물론 전인적인 측면에서 거룩과 기쁨으로 본다. 바람직한 성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 정직, 헌신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은 섬김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간통을 바라보는 관점은 단순히 법규정이 아니라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편이다. 유교적인 영향 아래서 항상 은밀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그래서 성에 대한 여러 편견과 오해들이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성은 더러운 것이며 영성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성숙되면 성욕은 느끼지 않는다” “성생활

없이도 얼마든지 부부생활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인간은 성적인 유혹 앞에서 대체로 무기력해지는 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마음속에 있는 성욕과 싸우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며 신앙이 약한 것도 아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의 대부분이 성의 갈등이 있다.

부부관계에서 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건강한 성은 행복한 부부관계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준다. 동서고금 원만한 성생활은 부부관계의 중심이 되어왔다. 세속적인 물질은 간통죄 폐지가 마치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의 본의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보다 더 개인의 책임 있는 도덕적, 그리고 신앙적인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다.

# TOGO & 캐더링 촬영

# 미글러 싸갈래

연말연시 동창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가족모임

캐더링 전문

정성껏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 2015 가을학기 글로벌선진학교 미국캠퍼스 개교기념 교육 컨퍼런스 Educational CONFERENCE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 박희민 목사



글로벌선진학교 설립이사장 남진석 목사

전문 강사 세미나  
학교 투어  
Washington D.C 무상 투어  
기념품 증정  
숙식 무료 제공

철저한 기독교 영성교육을 기반으로  
평범한 학생을 비범한 학생으로 양성하여  
전세계 명문대학으로 진출시킨  
한국 글로벌선진학교(GVCS)가  
현대교육의 본고장 미국동부 펜실베니아로  
진출하여 새로운 교육혁명을 불러일으킬  
그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85에이커(약 23만평) 80동의 빌딩은  
최고의 명문기숙학교로 발돋움하는데  
충분한 교육시설입니다.



주최	사)글로벌교육선교회 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일시	2015년 4월13일(월)-16일(목)
장소	글로벌선진학교 미국캠퍼스 3583 Scotland Rd. Chambersburg, PA 17254
참가비	참가비는 없습니다
문의전화	미국캠퍼스교감 좌수아강 717-830-9356 교육지원팀장 공안나 972-878-3533 홍보행정담당 송하은 614-725-6632 미주성시화본부 이성우 213-675-6493
연사	



미주성시화본부장 이성우목사



청소년 코칭 서우경박사



다문화와교육 김경옥박사



"1달러의기적"저자 최향숙사모

##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성령’에 대한 오해들

극단주의 무슬림의 프랑스 언론사 테레에 이어 IS(이슬람국가)의 일본 크리스천 언론인 ‘참수’로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이동주 박사(사진·선교신학연구소장)가 ‘무슬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무슬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3) 성령론

#### 3-1. 성령에 대한 오해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꾸란에는 ‘알라에게서 온 영’이라는 ‘거룩함의 영’에 관한 진술은 있다. 하나님 자신의 영을 의미하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꾸란에 없다. 알라 자신의 영에 관해서는 꾸란이 알고 있지 않다. 꾸란은 영(루흐)이라는 명사 앞에 정관사(알)이 빠져 있으므로 ‘루흐 꾸두스’(거룩함의 영)라는 영이 있을 뿐이다. 이 영이라는 단어는 ‘성령’이라고도 번역되고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지브리엘(가브리엘) 천사와 동일시하거나 알라의 영혼으로 번역되고 있다. <성 꾸란>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주님의 영혼(a sprit, [ruh])이라고 번역했다. 알라 자신은 영이 없기 때문에 꾸란은 하나님 자신의 영을 의미하는 성령의 조명이나 체험이 없고, 꾸란에서 성령을 뜻하는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했다는 무함마드조차 하나님 자신의 영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의 영인 성령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무함마드는 성령에 관해서 알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다. “그들이 성령이 관해서 그대에게 물으리라 일러 가로되 성령은 주님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며 너희가 아는 것은 미랑에 불과하니라(Sura 17:85)”.

무함마드의 ‘계시’와 관련된 영은 메카에서 12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정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주석가들이 이름 없는 그 영을 각주에 가브리엘이라고 주석했을 뿐이다. 그 이름은 모두 메디나에서 받은 ‘계시’ 중 2장과 66장 두 장에만 나타난다(Sura 2:97-98, 66:4).

꾸란은 성령을 한편으로 가브리엘 천사로 대체하여 하나님의 영을 하나의 피조물로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 무함마드로 대체하였다. 그렇게 온 인류의 1/5이나 되는 무슬림들을 속임으로써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자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사실 성령과 보혜사는 같은 영이며 하나

님 자신의 영인 줄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완전히 폐쇄된 채 1,40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갔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최대의 선물인 하나님 자신의 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에 약속하신 바와 같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용서 받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행 2:38).

#### 3-2. 아들을 증거하는 영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요 15:26)”.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므로, 성령을 받아야 그의 증거로 인하여 비로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게 된다(고전 12:3, 요 15:26, 행 1:8).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무슬림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하여 예수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호칭하며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성령’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가브리엘’은 예수를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슬람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신성모독죄인 아니면 다신론자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먼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다. 성령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며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전 12:3, 요 14-16장).

그러므로 3년 동안 따라 다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바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칭찬하시면서,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 알게 된다는 것을 친히 설명하신 것이다(마 16:16-17).

#### 3-3. 또 다른 보혜사

Sura 61:6은 다음과 같이 예수



이동주 박사  
선교신학연구소 소장

가 자신의 입으로 자기의 뒤를 이어 올 무함마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에게 보내어진 선지자로서 내 앞에 온 구약과 내 후에 올 아흐마드이란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의 복음을 확증하노라.’

Sura 3:81의 주 81-1에는 신구약 성경에 무함마드가 올 것을 예언해 놓았다고 하고, 그 근거를 신명기 18장 18절과 요한복음 14-16장에 두었다. 무슬림들은 요한복음의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 찬양받을 자) 즉 ‘아흐마드’인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왜곡하여 무함마드에 관한 예언을 성경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그들은 아흐마드 ‘찬양받을 자’(Der Gepriesene)’를 무함마드라고 해석한 것이다. 즉 예수의 후계자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예언이 아니라, 예수의 후계자로 찬양받을 자인 무함마드가 온다는 예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꾸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원어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이 가르치고 있는 ‘보혜사’ 또는 ‘대언자’(παράκλητος), 즉 “아버지 앞에 있는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는 것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보혜사”란 보혜사가 적어도 두 분 이상임을 의미하고, 그 한 분은 요한일서 2장 1절의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다른 한 분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시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다.

#### 3-4. 부어주시는 성령(롬5:5)

무함마드도 한 영을 받은 체험을 진술했다. 이 영은 메카에서 갑자기 나타나 무함마드를 몹시 두렵게 했다. 무함마드는 40세 되던 610년 라마단월, 메카에서 3마일 떨어진 광야에 있는 히라산 동굴에 들어가 명상했다. 그때의 상황을 알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은 무함마드의 애처 아이사에게서 전승된 무함마드의

신비체험으로 다음과 같이 그들의 하디스에 전하고 있다:

무함마드는 히라 동굴에서 여러 날 동안 알라를 경배하였다. 그때의 경험을 무함마드는 그의 첫째 부인 카디자에게 설명하면서 그는 한 ‘천사(the angel)’를 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에게 다가와서 ‘읽으라’고 명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 천사는 그를 강제로 잡고(caught me forcefully) 눌러 그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를 떼어놓고 재차 읽으라고 하였다.

이 사태가 똑같이 세 번 반복된 다음 그 ‘천사’는 ‘읽어라! 너의 주의 이름으로! 그는 응혈 clot)로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고 말했다. 이 ‘계시’ 내용이 Sura 96장에 기록됐다. 무함마드는 마음에 큰 타격을 입고 그의 첫 부인 카디자에게 돌아와 “나를 덮어주시오! 나를 덮어주시오! 나에게 일어날 일이 무섭소!” 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서 그 공포가 다 지나기까지 그를 덮어 주었다.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에서 발행한 <하디스> 선집에서는 무함마드의 영적 경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인기척 없는 적막한 사막의 동굴로 예고 없이 나타났다가 돌연히 사라져 버린 이 방문자는 악령의 통념적인 관념과 혼란이 되어 그를 경악시켰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변모해서 사생활을 해롭게 간섭하는 정신상태에 사로잡히게 했다.”

위 서술과 같이 무함마드 자신도 처음에는 이 방문자를 악령(Jinn)으로 생각했다. 무슬림 하디스는 또 자비르(Ja:bir b. Abdulla:h)의 구전을 ‘It was terror-stricken till I fell on the ground’라고 전하며, 그 영을 만났던 무함마드의 고통을 서술하고 있다.

인간은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창조되었다. 무속 문화권에서는 선무당이 아니라 진짜 무당은 귀신을 받는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는다(행 2:38). 인생의 수고와 고통과 소외감에서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날마다 행복을 고백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함을 고백할 수 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요 3:16; 요 4:10) 평강과 희락을 체험하고(롬 14:17)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갈 5:22).

#### 3-5.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는 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갈 4:6), 하나님의 영이다(롬 8:9f). 그는 진리의 영이며(요 16:13, 14:17),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행 1:8, 요 15:26),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요 16:14)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고전 12:3).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영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증거를 받는다.

이와 같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요 3:16).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신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고 임마누엘의 친밀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롬 5:10-11, 2:2, 고후 5:16-19). 이 친밀성은 오순절에 감람하신 성령이 그리스도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행 2:38, 요 14:16f)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성령감람으로 인하여 죄의 종 또는 진노의 자녀(엡 2:3) 또는 마귀의 자녀(요일 3:10) 관계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 3-6.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영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시는 보혜사 성령(요 15:26)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새 피조물이 되고(고후 5:17, 롬 12:1-2), 새 마음을 주시고(겔 36:25-26), 새 사랑을 주신다(고전 13). 새로운 평안을 주시고(요 14:27),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하시고(롬 3:24) 거룩하게 하신다(고전 6:11, 살전 3:13, 히 10:10). 기독교의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며(요 14:17), 의와 희락과 평안의 영이다(롬 14:17).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다(고후 3:15).

하나님 자신의 영(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 속에 내주시는 사람이다(고후 13:5). 성경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후 13:5). (계속)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물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 복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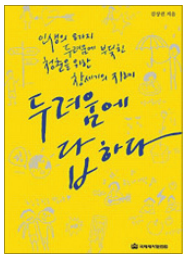


### 신간추천

#### 두려움에 답하다

김성권 | 국제제자훈련원 | 260쪽

상처와 유혹, 이성 교제와 예배, 관계와 종말 등 인생의 8가지 두려움에 부딪힌 청춘들에게 '인간의 삶을 압축해 보여주는' 창세기의 여러 말씀을 통해 신앙의 노선에서 돌과구를 찾도록 은혜를 전하고 있다. 청년들과 동고동락해 온 저자가 그들의 실제적 고민을 놓고 쓴 글이다.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등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담았다.



#### 성경적 구원론

로버트 A. 피터슨 | P&R | 360쪽

출판사의 '성경신학으로의 여행 시리즈' 네 번째 편. 그리스도인이 배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목회자들의 이러한 고민과 의문을 놓고 신·구약 전반을 살피며 답하고 있다. 배교와 보호, 인내와 확신에 대한 주제들을 성경적이면서도 신학적으로 통찰력 있게 잘 다루었다. 연구와 토론을 위한 질문은 소그룹 성경 공부용으로 좋다.



#### 모든 사람을 위한 목회서신

톰 라이트 | IVP | 236쪽

'톰 라이트 에브리원 주석' 시리즈 중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부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 같은 젊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로서, 모든 지도자는 온갖 유혹과 비난과 악에 맞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조언을 개인적인 편지에 담았다. 1세기 유대 문화의 관점에서 풀어낸 신선한 해석이 현대적인 예화와 과 어우러진, 이야기식 성경읽기.



#### 위대한 사랑의 힘에 사로잡힌 삶

고든 코스비 | 평단 | 208쪽

세이비어교회 창립자인 저자가 쓴 묵상집. 세이비어교회는 고도의 훈련으로, 불과 150여명의 성도로도 미국 교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모든 인류가 고민하고 방황하며 방향을 찾지 못해 헤매는 많은 문제에 대해, 스스로 묻고 고뇌하고 기도하며 성찰해 답을 찾아가는 내용.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줌으로써 얻는 놀라운 삶을 들려준다.



## REVIEW

### 한 목회자의 무너짐과 회복의 고백

“무너짐은 아프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짐은 당연한 훈련 과정이다”

“무너짐”은 아프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짐은 당연한 훈련 과정이다. 나의 무너짐 없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미국 엘에이)에서도 가장 신실하고도 성공적인 목회자 중 하나로 잘 알려진, (전) 오렌지 카운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현) Azusa Pacific University 실천신학 교수 및 삼성장로교회 담임인 신원규 목사이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교인들이 몰려오고 초대형 교회 건물을 사들일 때, 그는 그 외적인 성공을 하

나님이 복을 쏟아 붓고 계시는 증거로 여겼다. 하지만 아주 순식간에 그는 그 신기루에 속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버렸다. 성도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영원히 잘 나갈 것처럼 여길 때, 하나님은 미국의 금융 위기를 통해 꼼짝 없이 교회를 은행에 넘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10년여 동안 끈질기게 저자를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셨다. 죽음을 생각할 만큼 견딜 수 없는 불 타님이었지만, 그것은 그 동안 켜켜이 쌓여 있었던 욕심과 허울을 벗고, 생명으로 올라가는 시간이었다.

이 책은 '주님을 사랑하므로' 교회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 신원규 | 두란노 | 228쪽

를 성장시키려 했던 저자를 어떻게 쳐서 '종을 사랑하시므로' 치열하고

끈질기게 '낮고 작은 교회'로 만들어 오신 주님의 사랑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다. 동시에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종으로 부름 받은 저자가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는지에 대한 회고이자 고백이다.

여기에는 솔한 도전과 승리가 있는가 하면 실패와 탐욕으로 얼룩진 사건들이 있다. 주님이 하나님의 종을 높이실 때는 어떻게 높이시는가, 인간이 교만해지면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한가, 주님이 하나님의 종을 낮추시고 부수실 때는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사실대

로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저자와 삼성장로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이 땅에서 주님의 종,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의 이야기다. 동시에 주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과 교회를 얼마나 한결같이, 치열하게, 놀라운 방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한다. 그래서 그 부르심과 세우심, 높이심과 낮추심의 뜻을 잘 알고 날마다 한 발짝이라도 더 '사랑의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이영인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타주이사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해외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이재철 목사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대만 출간

대만 국립대 교수 등 영향력 있는 인사 7명이 추천사 쓰기도 해

이재철 목사(100주년기념교회)의 청년서신 중 하나인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가 대만에서 <現在, 決定未來(현재, 결정미래: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이름으로 출판사 교원(校園書房出版社)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대만 현지 청년들 집회 시기에 맞춰 출간됐으며, 청년들과 청년사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책에는 대만 국립대 교수 등 영향력 있는 인사 7명이 추천사를 써 주기도 했다.

‘교원’은 우리나라의 IVP나 예수전도단처럼 캠퍼스 선교와 문서선교를 함께하고 있다. 교원 외에 도성과 CCLM 등 3곳은 1년에 30-40여종을 펴내는 중견 기독교 출판사다.

현지 관계자들은 “이 책처럼 대만에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서가 많지 않았다”며 “주제별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사역자들에게 꾸준히 활용될 것 같다”고 했다.

현지에 도서가 소개돼 출판으로 이어진 데는 현지 한인 선교사가 큰



대만에서 번역·출간된 해당 도서 ©홍성사 제공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후문이 있다. 대만에서 문서선교를 하고 있는 박동성 선교사가 현지 출판사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관련 도서들을 몇몇 소개했고, 홍성사는 박 선교사의 도움으로 지난해 현지 도서전에서 이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만에서 이재철 목사의 저서는 <비전의 사람>이 3년 전 도성출판사에서 처음으로 출판됐으며, 이 책도 교원에서 재출간될 예정이다. 대만 지역의 선교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1990년대와 비슷하게 우호적이라고 한다.

이 외에 이어령 박사와의 대담집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 CCLM출판사를 통해 번역 중에 있기도 하다. 이 목사의 도서 외에도 지난해 <동행.net>에 이어 최근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의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도 CCLM과 계약됐다. <성숙자반>, <사명자반>은 몽골 ‘Channel of blessing publishing house’ 출판사에서 나올 예정이다.

현지 도서전 등에 참석해 교류하고 있는 홍성사 임승철 주임은 “대만은 기독교 교육 관련 도서가 적은 편으로, 전략적으로 잘 소개한다면 다른 기독교 출판사들에게도 길이 열리리라 생각한다”며 “대만은 매년 방문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해외 저작권 계약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 “소명·사람·장소·시간” ‘영적 분별력’으로 시대를 아는 힘

시카고한인교회 서창권 담임목사 신간 출간



시대를 아는 힘 서창권 | 선교책 | 235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떤 분야에서든 확실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은 바로 불안장애가 아닐까?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 시카고한인교회 서창권 담임목사가 “시대를 아는 힘”이란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서 목사가 전한 설교 중 영적 분별력에 관한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서문에서부터 “영적 분별력을 키우라”고 과감하게 도전한다. “영 분별은 성령의 은사이므로 우리가 사모하며 열심히 구해야 한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므로 노력하고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 제목과 표지만 봐서는, 성공한 이민목회자의 전형적인 자기계발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들 예겐 오늘 내가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주시에 하나님이 분별력까지 주시며 더 대박날 것 같은 희망마저 생긴다. 그러나 서 목사는 첫 번째 글부터 독자들의 이런 대박 희망을 부끄럽게 만든다. 저자의 집필 동기가 해방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이한 조국의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읽으면 충격이 덜할 것 같다.

1부 소명을 아는 힘, 2부 사람을 아는 힘, 3부 장소를 아는 힘, 4부 시간을 아는 힘 등은 우리가 “무엇을 누구와 어디서 언제” 해야 할지 날마다 고민하는 주제를 모두 축약하고 있다. 그러나 서 목사는 이런 고민을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고민으로 끌고 올라간다. 예를 들면, 소명을 잘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될 해야 성공하더라’는 질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하는 기대감에 기인한다.

또 자신과 함께 할 사람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이다.

수천 년 전 쓰인 성경으로,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성도들을 비추는 데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저자는 모든 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겪었던 스토리를 읽다 보면 어느새 나를 위해 필요했던 ‘분별력’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분별력’으로 바뀐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서 목사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강력한 도전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구하는 A=B, B=C라는 식의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 책은 분별력을 ‘주기’보다는 분별력을 ‘키우도록 훈련’시켜주는 데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날 위한 대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박’을 향한 훈련의 첫걸음이 되게 인도하고 있다.

“시대를 아는 힘”의 수익금은 전액 탈북자 구출 및 정착 사역에 사용된다. 이 책은 비블리칼신학교의 프랭크 제임스 총장,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등이 추천사를 썼다. 제임스 총장은 “행간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묵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목회자의 심정이 곳곳에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이 목사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현재 이 책은 한인 2세, 미국인, 선교지의 현지인 신학생과 사역자들을 위해 약 10여 명으로 구성된 번역팀이 번역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로 미국에서 영어판이, 한국에서 한영판이 추가로 출판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저자 서창권 목사

## “말씀을 사모하는 평신도들을 위한 성경 길라잡이”

이수빈 안수집사의 ‘평신도가 쓴 성경 개관서’



평신도 성경 개관서 이수빈 | 넥서스 크로스 | 472쪽

<평신도 성경 개관서(넥서스 CROSS)>는 제목 그대로 ‘평신도가 쓴 성경 개관서’다.

이 책은 연대 순으로 성경 각 권

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역사적 개요와 내용 정리를 통해 누구나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요약했다.

저자 이수빈 안수집사(무학교회)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교과서”라며 “성경의 올바른 지식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오십 세가 되던 지난 2008년,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나님도, 성경도 다시 보았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책들을 구해 읽어 봤지만 여전히 같

급한 심령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성경에 대한 책들은 많지만, ‘성경 66권’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한다. 결국 혼자서 이스라엘의 정치·경제·문화·지리·역사와 중근동사, 세계사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해 가며 ‘쉬운 성경’부터 읽기 시작했다.

각종 성경이 ‘너털너털해질 정도로’ 줄을 쳐 가며 읽었다.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겼다. 100권을 읽고 나니, 범람하는 자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말씀을 통해 삶도 변화했다.

이수빈 집사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결국 주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평신도의 눈’으로 정리하게 됐다. 말씀에 목마른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고 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적극 권한다. 성경 통독도 큐티도 쉬워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영인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액 검사 \*체질 검사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 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병약개발, 원 FDA임상 2차 실험 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약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이 송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청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업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범위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GO & 캐더링 원영**

**머글레 싸갈레**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

월: 부대찌개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불고기 콩치구이 오모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피스타치오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치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떡볶이  
 금: 궁치김치 돈불고기 돈가스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김치구이 돈가스 치킨테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인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툰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개월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튼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2014 3.8 ALL IN STOCK @ \$36,120**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36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200 down = \$250 lease cash, \$500 mileage, \$400 college rebate, \$1,000 in excess of 12,000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 \$389 without \$1,200 lease cash.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36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200 down = \$250 lease cash, \$500 mileage, \$400 college rebate, \$1,000 in excess of 12,000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 \$1,039 without \$1,000 lease cash.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 “대 이은 한국 사랑” 장신대 마삼락 협동학장 추모

통합총회 주최로 장신대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거행돼



마삼락 목사 추모 예식이 장신대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故 마삼락(Samuel Hugh Moffett) 장신대 협동학장 추모 예식이 10일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정영택 목사) 주최 장신대학교(총장 김명용 박사) 주관으로 장신대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거행됐다.

초기 선교사로 장신대를 설립한 故 마포삼열(S. A. Moffett) 박사의 3남 마삼락 목사는 1916년 4월 7일 태어나 2015년 2월 9일 소천했다.

마삼락 목사는 평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평양 외국인학교에서 수학했고, 1938년 미국 휘튼대학교(B.A.)를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프린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B.D.)을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교회사(선교역사)로 박사학

위(Ph.D.)를 취득했다.

이후 중국 북경과 난징의 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다 1951년 공산당에 의해 추방됐다. 1953~1955년 프린스턴신학대학교에서 강사를 맡았고, 1955년 미국장로교(당시 미국연합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으로 파송된다.

경북 안동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한 마삼락 목사는, 3년 뒤 1959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아 1981년까지 사역한다(아시아 교회사, 에큐메니즘). 그 기간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마 목사는, 1982년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2015년까지 장로회신학대학교 협동학장(Co-Dean)

으로 봉사했다.

이날 예식은 정영택 통합총회 총회장의 인도, 이광순 목사(전 주안 대학원대학교 총장)의 기도, 조동수 학생(신대원 신학과 학우회장)의 성경봉독, 박창환 목사(제13대 학장)의 설교, 윤철호 대학원장의 고인 약력 소개, 정장복 목사(전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의 추모사, 유족 대표 마에린(Eileen F. Moffett) 여사와 이홍정 목사(통합총회 사무총장)의 인사, 김도일 목사(대외협력처장)의 광고, 손대호 목사(이사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때가 찬 경륜’(엡 1:7~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창환 목사는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신 마삼락 박사님을 당신의 품으로 불러 올리셨다”며 “그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경륜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존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뜻을 되새겨 본다”고 했다.

정장복 목사는 “스승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마삼락, 그 이름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추모사를 대신했다.

하석수 기자

# 통일목회, 이 시대 향한 하나님 뜻

예장합동 총회 통일준비위원회, 총회 통일정책 심포지엄 개최



예장합동 총회 통일준비위원회의 통일정책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예장합동 총회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 김정설 목사)가 10일 오전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통일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총회의 통일 준비를 촉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수봉 목사(기독교북한선교회 사무총장)는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운동이라는 민족적 대사건에 기독교가 절반 이상의 역할을 했고, 산업화 시대에도 기독교는 선각자로서 인재를 배출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금은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통일시대 통일목회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통일목회는 카이로스적 관점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명도 교수(경민대)는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통일대비 역할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특히 북한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민간기독교단체는 이런 북한사람들을 포섭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도해서 그들이 다시 북한에 돌아갔을 때 자기 가족이나 친지를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민간기독교단체들은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들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줘야 할 것 ▶민간기독교단체는 북한의 취약계층들에 대한 의약품이나 식량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면서 북한 내부에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발제 후 패널들과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는 이문희 목사, 박성순 목사, 이원재 목사 등 통일준비위원 3인이 수고했으며, 행사 전 예배에서는 김정설 목사(위원장)가 “열방이 돌아오리니”(사 11:10~16)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총회총무 김창수 목사가 격려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수민 기자

# 박조준 목사 “이상적 교회 규모는 약 500명”

세계지도력개발원 · 국독연 제1회 세미나 강사로 나서 경험 간증



박조준 목사가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다.

세계지도력개발원(원장 박조준 목사)과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세계지도력개발원 사무실에서 제1회 ‘말씀 선포와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조준 목사(갈보리교회 원로)가 강사로 나서 자신의 목회 경험담을 나눴다.

박 목사는 목사안수를 받은 직후 1960년 서울 영등포의 영은교회(담임 고일호 목사)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성장을 이끈다. 당시 故 한경직 목사가 담임하던 영락교회 부

목사로 자리를 옮겨 1973년 한 목사에 이어 담임목사가 됐다. 이후 1985년 갈보리교회(담임 이웅조 목사)를 창립해 지난 2003년 원로목사로 추대됐고, 한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다 최근 귀국해 세계지도력개발원을 설립했다.

박 목사는 과거 신학교 졸업 후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것부터, 영은교회와 영락교회를 거쳐 갈보리교회를 창립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목

회자로서의 삶을 간증했다.

특히 그는 신학생 시절 “작은 교회를 돕고 싶다”는 생각에 우연히 다니기 시작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며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의 많은 일들을 도맡았던 당시를 떠올렸다.

박 목사는 “사실 대형교회 교인들은 보다 가까워서 담임목사의 관심을 받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 목회적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규모는 교인 5백 명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나 역시 대형교회에서 목회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렇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박 목사는 이날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기 전 참석자들을 향해 “혹 작은 교회에서 목회의 출발선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성공적인 목회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작은 몫을 감당하고 싶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합동측 목회자 500명 중 57%, 납세 찬성

기독신문 의식조사, 희망 교회 규모는 ‘중소형’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백남선 목사)의 교단지인 ‘기독신문’이 창간 50주년을 기념해 ‘목회자 의식조사’를 실시,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기독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나이스 R&C’에 의뢰해 지난 2월 3, 4일 교단 소속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먼저 ‘목회자 납세’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7%가 찬성했다. 이유는 ‘한국교회 공공성 및 사회 신뢰 회복’(43.9%)이 가장 많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세 의무 동참’(40%), ‘국민연금 등 사회적 혜택 위해 필요’(9.8%)가 뒤를 이었다.

반대는 39.6%였는데, ‘교인 헌금

이중과세 우려’(34.8%)가 가장 큰 이유였다. 이어 ‘종교 자유와 독립성 침해’(31.3%), ‘정부의 교회 재정 감시 가능’(20.7%) 순으로 꼽았다. 무응답은 3.4%.

‘희망 교회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50.8%)들이 ‘101~300명 중소형교회’를 꼽았다. 다음으로 ‘301~500명 중형교회’가 21.4%, ‘100명 이하 소형교회’는 14.6%였다. ‘1,001~10,000명 대형교회’와 ‘10,001명 이상 초대형교회’는 각각 1.6%, 1.8%에 그쳤다.

교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교회 지도자들’(53.8%)이 가장 많이 꼽혔다.



굿네이버스는 기독일보와 함께 저개발 국가의 아동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을 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5세 이하의 아이들 100만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제 한병과 약간의 식량이면 허무하게 끝나가는 이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이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네이버스 친선대사 최수종 드림



당신의 나눔만이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후원문의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http://www.goodneighbors.org)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기관으로써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하여 전세계 32개국에서 구호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 입니다.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FULL GOSPEL WORLD MISSION INC.

# 이영훈 목사 초청 L.A. 축복성회

일시: 2015년 3월 25일(수) 19:30

장소: 나성순복음교회당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 일정안내

목회자 세미나 8:30am (최성규 목사 / 이태근 목사)

북미총회 목사 안수식 11:00am (설교: 이영훈 목사)

이영훈 목사 초청 L.A. 축복성회 7:30pm



##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공동단장  
사단법인 굿피플 이사장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